25일은 차의 날

차 축제 등 잇달은 행사 '禪茶一如'로의 초대

'영산으로 가져가 여러 부처님께 바치고자
차를 끓이면서 다시금 범율(梵律)에 대해 세밀히 생각해 보네.
알가(茶)의 참 모습은 오묘한 근원에 이르게 하나니
오묘한 근원은 집착이 없는 바라밀이라네.'

다성(茶聖)으로 불리우는 초의선사(1786~1866)는 차를 끓이는 과정에서 우주의 근본 법칙을 깨달고 이렇게 읊었다. 차 마시는 일을 욕심과 번뇌를 없애주는 수행방편으로서 참선과 같은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차 마시는 일은 수행자들의 중요한 일과중의 하나다. 중국 강서성 영수현의 선종사찰인 진여사에서는 지금도 출가 이후 삼년동안 제다(製茶)에 종사해야 정식 승려로 득도할 수 있을 정도로 차 다루는 일 자체가 수행의 한 과정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어디 수행자들뿐이랴, 현대인들 또한 차 마시기를 즐겨하며 선다일여(禪茶一如)의 경지를 지향한다.

25일은 스물 한 번 째 맞는 차의 날이다. 차의 날을 앞두고 차의 멋과 맛과 향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중이다.

제6회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제6회 하동야생차문화 축제가 24~27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차 시배지 및 진교면 막사발 도요지 일대에서 열린다. 차 만들기 체험, 차 만들기 시연, 차 여인 선발대회, 차 시배지 다례식,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 유적지 관광 등으로 이루어진다. (055)880-2351

제21회 차의 날 기념 큰 잔치

한국차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제21회 차의 날 기념 큰 잔치는 24~25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 일원에서 열린다. 기념식을 비롯해 선녀 여왕 다유회, 두리차회가 우리 차 시연을 선보이고, 올해의 명차도 선정한다.(02)734-5866

쌍계사 국사암 산사문화체험

참선과 차, 범패의 본고장인 쌍계사 국사암에서는 25일~27일까지 2박3일간 제2회 산사문화체험 마당을 연다.

25일 국사암 암주 월호스님과 유근자씨(동국대 강사)가 지도하는 불교미술 강좌를 시작으로 차시배지 견학 및 시음, 참선, 가람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일 오후 7시에는 쌍계사 팔영루에서 영산재보존회 법현스님과 니르바나실내악단, 쌍계사합창단이 전통 불교음악과 현대불교음악이 어우러지는 작은 음악회도 선보일 예정이며, 27일 오전 10시에는 쌍계사 창건주인 진감국사 추모다례식도 봉행한다. 산사문화체험은 미리 참가 신청을 해야 동참할 수 있으며, 진감국사 추모다례제와 작은 음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055)883-8801

한일 차문화 교류회

포항차인회 제11회 봄맞이 들차회 및 한일 차문화 교류회는 19일 포항문화회관 소공연장 및 야외 잔디밭에서 열린다. 한국 차와 일본 차 행다 시연과 동래학춤과 승무 등이 공연된다.(054)247-8595

김창배 다실 풍경전

화가 김창배 씨의 '다실 풍경전'은 6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담원갤러리에서 열린다. 차 한잔 앞에 놓고 참선에 든 노스님의 모습에서부터 장난스레 차를 끓이는 어린 행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다실 풍경을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담았다.

서울 전시와 더불어 11일~20일에는 대구 갤러리 수다에서, 6월1일~8일에는 제주 해변공연장 전시실에서 선보인다.(02)736-7445

이은자 기자(ejee@buddhapia.com)

◇'차사모'는 매월 둘째 토요일 무박다회를 열어 갓 입문한 차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인사동에 아늑한 공간 차 만들어 마시는 곳

전통문화의 거리 인사동에 차의 향기를 전하는 곳이 생겼다. 국제차문화원의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차사모)이 바로 그것이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차를 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문을 연 '차사모'는 원장인 연극인 전무송씨를 비롯해 강화 전등사 범우스님, 부석사 도륜스님, 중요무형문화재 45호 대금산조 이수자 자연스님, 선화가 범주스님 등이 함께 한다.

'차사모'는 외양으로만 우리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차의 정신은 물론 그속에 담긴 우리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사람 냄새나는 정겨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그동안 입소문을 통해 16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가입비를 내고 월 1만원의 회비를 내면 된다.

'차사모'에서는 차 만들어 마시는 모든 과정이 개인의 직접 참여로 이뤄지는데, 총무 이미애보살이 초보 다인에게 간단한 설명과 지도도 해준다. 녹차를 비롯해 보이차, 말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가 준비돼 있으며, 다구와 다완도 판매한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차사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차 시음료 2천원을 내야 한다. 한잔에 5~6천원을 호가하는 인사동 찻집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미할 수 있다.

'차사모'는 3월부터 무박다회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열어 아마추어 차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일 일반회원을 위한 무박다회에서는 시낭송과 음악감상, 야생녹차 시음, 말차시연을 가졌다.

인사동 한복판 인창빌딩 4층에 자리한 '차사모'는 차 마시는 일조차 얄팍한 상술로 포장해 판매하는 인사동의 뒤틀린 문화에 경책이 되고 있다.(02)735-7114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남쪽으로 난 길을 따라 화순 운주사에 다녀왔다. 달리는 버스의 창 밖으로 산과 들의 신록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봄 햇살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듯한 투명하고 보드라운 연두색 이파리들에서 차마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자세히 보았더니, 그 초록의 빛깔은 나무마다 모두 달랐다. 아니, 같은 나무라도 잎사귀 하나 하나가 서로 다른 색깔이었다. 무심히 볼 때는 그저 다 같은 초록빛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 하나가 이렇게 미묘하게 다르다니! 초록의 빛깔이 이토록 다양한지 미처 몰랐다.

운주사 길이 초행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가서 본 천불천탑(千佛千塔)은 새삼스러운 감동으로 다가왔다. 수많은 석탑과 돌부처가 흩어져 있는 운주사 계곡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절 뒤편의 '공사바위' 돌의자에 걸터앉아 인공과 자연이 기막히게 조화를 이룬 계곡과 양편 언덕을 내려다보고 있노라니, 이 장엄한 노천법당 겸 천연 야외조각미술관을 처음 디자인한 그 누군가의 심성이 더욱 궁금해지면서, '남도풍(南道風)의 파수꾼'이라는 송수권 시인의 '운주사 운(雲住寺 韻)'이 생각났다.

송수권 '운주사 韻'(1)

돌부처와 탑들 용화세계로 이끄는 듯하다

(一) 아 통성(通性)도 없이 통성(通性)도 없이
이(李)서방이나 김(金)서방 한물댁이나 여산댁들
한밤내 모닥불 지피고 내게 이르는 말
화적(火賊)떼나 되라 하네 활빈당이나 되라 하네
저 들머리 나자빠진 시무룩한 돌미륵들
너는 떨거지떼 되지 말고 구름에 가 살지도 말라 하네
(二)

세련되고 화려한 귀족 불교예술과는 거리가 먼 이 '못난이' 돌부처와 소박한 탑들은 단순하고 투박한 서민들의 심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귀족들의 귀의 대상으로 도솔천에 왕생할 상생(上生) 신앙의 미륵이 아니라, 무지한 민중들을 위해 이 '겨우 견디고 살아가는 사바세계'에 내려올 하생(下生) 신앙의 미륵은 마땅히 저런 얼굴을 하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운주사는 사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그 창건 유래를 알 수 없고 구전으로 전해오는 설화만 분분하다.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나로서는 어쩐지 송수권의 시가 말하는 것처럼, 고려 초에 나라를 잃고 유랑 길에 나선 후백제의 유민들이 이 산골에 흘러 들어와 망국의 원(怨)과 한(恨)을 남도 땅 특유의 시심(詩心)으로 승화시켜 이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운주사 계곡에 나름의 미륵 용화세계(龍華世界)를 이룩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에 마음이 기우는 것이다.

이 천진한 돌부처와 엉성한 돌탑이 오히려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나는 계곡 입구 바른편 언덕 위 소나무 숲 사이에 서 있는, 소위 '거지탑' 혹은 '동냥치탑'이라 불리는 가장 못생긴 탑 앞에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맛보았다. 근처에 굴러다니는 자연석을 그대로 덤벙 덤벙 얹어놓은 이 오층석탑은 그야말로 '무기교의 기교'의 극치였기 때문이다. (계속)

■문학평론가

화제의 전시

민속박물관 '성철 스님 만장전'

국립민속박물관은 28일까지 박물관내 1,2전시실에서 '부처님 오신 날-성철스님 만장과의 해후' 특별전을 연다.

만장(挽章)은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벗이나 제자들이 돌아가신 이의 덕과 학식을 기리기 위해 지은 만가, 만시, 만사 등을 종이나 비단에 써서 영전에 바치는 것으로 보통 길이 8자, 폭2자 내외이며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진다.

성철性徹 스님의 다비식을 위해 제작된 만장은 약 1000여개였으나 그 중 2백여개는 신도와 스님들이 기념 신표로 간직하기 위해 가져갔고, 나머지 776개는 박물관에서 수거, 정리하여 보관해 왔다. 박물관측은 이번에 이 가운데 30여점을 공개한다. '이뭣고', '산은 산 물은 물',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구도와 자각을 일깨우는 내용들이다.(02)720-3138

중앙박물관 '전통미술 속 어린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달의 문화재'로 조선시대 목동자 · 동녀상들을 모은 '전통미술 속의 어린이' 전을 31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목동자상과 함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어린이 목우도 함께 전시된다.

목동자상은 사찰의 명부전에 모신 시왕(十王)을 좌 · 우에서 협시하거나 응진전의 나한상 옆에 봉안되었던 것들로 6~7cm 크기 4점이 선보인다.

중앙박물관 전인지 학예연구사는 "소박한 조각기법과 다채로운 색채, 순박한 표정들이 어우러진 목동자상들은 목조각 분야에서도 최근에야 그 아름다움이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라며 "종교적 믿음이 배어있는 것들이라 동자상 중에서도 특히 표정이나 기법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02)398-5199